

# 광주시·전남도 대북교류사업 활성화 기대

### 정부, 남북관계 복원 시작 민간교류 완화

### 신재생에너지 마을·땅끝협력 재개 전망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북교류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정체된 뒤 지난해 2월 북한의 정거리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의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모두 중단됐다.

광주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본격적인 남북 교류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의회를 설립하고 43억 5600만원의 남북교류 기금을 조성했다. 광주시는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 ▲2007년 북한 수해지역 복구지원사업 5000만원 ▲2008년 평양 배합사료 건설사업 28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 한 차례의 남

북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북교류기금이 42억여원 가량 조성돼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춰 남북교류가 완화될 경우 애초 구상했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북한 내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협력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마을 건설이 목적이다.

전남도는 2018년 국제수목화비엔날레의 선도사업 형태로 오는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017 국제 수목화 교류전'에 북한 작가의 초청을 시도할 방침이다.

최근 협의회를 갖고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측과 협의하는 문체도 검토중이다.

이외에 지난해 남북교류기금에서 3억원, 일반회계에서 2억원 등 모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었던 함경북도와의 '땅끝 협력' 등도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북한의 땅끝인 함경북도에 미역과 쌀을 보내는 '땅끝 협력' 대북교류사업, 함경북도 산



모·영유아 및 불우아동 대상 인도적 지원, 통일부 주관 '대북 산림협력사업 기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거기에 올해는 체육교류까지 시도할 계획이었다.

전남도는 이러한 남북교류에 사용할 기금 5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의 할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달리 민간교류가 가능해 진다면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해경, 여수·통영 등 6곳

### 방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 오염사고 위험이 큰 여수·통영 등 6개 지역의 유인도서 등에 대해 방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구획별로 해안의 바다 물질·경사도·깊이·접근성 등 특성과 보호·관리구역 현황, 주요 해양산업시설 현황, 가용한 방제자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방제 방식을 선택해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있다.

법적으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해안방제는 지자체가 주관하지만, 안전처는 지자체의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한 만큼 방제 방식 등을 조언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방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청년창업 Jump-Up 선인식

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창업도시 광주' 선포 1주년을 맞아 동명동 I-Plex광주에서 운영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광주청년창업 Jump-Up 선인식'을 했다. 행사 참석

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협약 동의안 등 13건 처리한다

###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 개회식서 '임 행진곡' 제창

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시정질문에는 23일 조오성·임택 의원, 24일 김민중·김영남 의원, 25일 이마옥 의원이 나서 광주시에 대한 현안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의 경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한다.

교육문화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 초등학생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수상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조례안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증대를 위한 조례안 등도 처리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시장 인사청문 결과보고의 건'도 예정돼 있다. 최현일기자 cki@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안건 43건 중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 등 13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다음달 1일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 개최식에서 시의원들과 운영현 광주시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광주시교육청 관계자 등은 모두가 기립한 가운데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공식 의사 일정으로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기는 1991년 6월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의회의 장단과 집행부는 최근 실무회의를 거쳐 제창에 합의했다. 최현일기자 cki@

## 문대통령 5·18때 찾은 '서민식당' 문전성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찾은 '서민식당'이 입소문이 나면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 동구 대인동 화랑궁하관을 찾아 점심 식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일행 40여 명과 함께 8000원짜리 생고기

다"고 전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이곳에 문을 연 이 식당은 중장년층이 주 고객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민식당으로 알려졌다.

신씨 남편을 비롯한 시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유신체제를 비판한 전

### 화랑궁하관서 8000원 비빔밥 주문

### 가족들 시국사건 구속·DJ 인연도

비빔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화랑궁하관 사람이 먼 저기'란 친필 사인도 남겼다. 문 대통령이 이 식당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퍼지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도 부쩍 늘었다.

주인 신모씨는 22일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소보다 손님이 두 배가량 늘었다"며 "광주 뿐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오신 손님들이 적지 않았

'합성지' 사건에 연루돼 고(故) 김남주 시인과 함께 신씨 남편 이항(63)씨, 신씨의 큰 시속 이강(70)씨가 구속

되고 이항씨의 누나 이정(69)씨는 불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 광주를 방문하면 이곳에서 각종 회의를 하고 식사를 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 성명 작성 장소로도 애용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도 불렸다. 이러한 인연으로 문 대통령이 이 식당을 직접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인정

### 시의회 청문 보고서 채택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인 김성호 후보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고경영자가 지녀야 할 능력은 검증이 안 된 점, 후보 선정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철도청에 하위직으로 입사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기획경영실장 및 고

객서비스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관련 분야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공정한 경영철학 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1차 공모에서 하위권이었던 김 후보가 2차 공모에서 1위가 된 점과 운영현 광주시장과 고교동문이라는 점 등도 청문회에서 지적받으며 후보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인사청문특위는 23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뒤 이를 시장에게 전달할 운영현 시장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임명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고흥 다시마 활용 미세먼지 흡착 천연화장품 만든다

고흥산 다시마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을 갖춘 천연화장품이 개발됐다.

22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에 따르면 센터에서 화장품 소재 개발을 지원한 월드코스텍은 최근 고흥산 다시마를 원료로 한 천연 마스크팩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다음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절차도 앞두고 있다. 마스크팩은 모공을 자극해 피부질환

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수출과 함께 대기업 계열 뷰티 매장 입점도 매출이 기대된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월드코스텍은 센터에서 창업보육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장성에 있는 나노기술 산업단지에서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을 갖춘 화장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종현기자 chadol@kwangju.co.kr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100m**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